

경기를 하면 머리가 나빠질까?

www.babydoctor.co.kr

경기를 하면 머리가 나빠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열성 경기를 했다고 해서 머리가 나빠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일으키는 병중에는 머리에 손상을 주어 머리를 나쁘게 하는 병도 있습니다. 열이 나면 아가들이 열성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가들 100명중에 3~4명은 한번쯤은 열성 경기를 하므로 그렇게 드문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열 때문에 열성 경기를 하면 처음에는 숨 넘어갈까봐 제발 살아만다오 라고 하던 엄마가 몇번 열성 경기를 반복하면 아이 머리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라면 어느 정도 열성 경기했다고 머리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단순 열성 경기의 경우 경기는 어릴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일으키는 병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만일 뇌막염이나 뇌의 손상에 의해서 경기를 한다면 머리가 나빠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열성경기는 대개의 경우 머리 나빠지는 것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뇌를 침범하는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나아도 머리가 많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병도 경기를 할 수 있는 병입니다.

태열은 그냥 두어도 되나?

태열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1개월 반된 아가에게 태열이 있을 경우 나중에 완전히 낫느냐는 어떤 엄마라도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모든 아가들이 다 깨끗하게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데 누가 좋아지고 누가 오랫동안 고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1개월 반된 아가의 태열은 아직 고민하시기는 좀 빠릅니다. 그리고 태열은 그냥 두면 되는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안그럴수도 있다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우리 아가가 태열로 고생 안했다고 다른 아가들도 그냥 두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약한 태열은 그냥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열이 심한 경우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태열이 저절로 좋아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걷게되는 나이쯤이면 대개 좋아진다는 것이지 모든 아가들이 좋아지는것을 아닙니다. 설사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라도 아가들이 덜 고생 하도록 소아과에서 치료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열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식에 더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영희